

오케이속초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2020/09



오케이속초는 '오케이속초'의 각 음절마다 초성을 골라 나열한 표현으로, 속초의 문화를 발랄하게 즐겨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케이속초는 속초문화재단이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브랜드 명입니다.

창간호 Vol. 1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하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문화브랜드로 성장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속초시는 '일상의 문화가 살아 있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 속초

발행처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인 김철수

편집위원/시민문화활동가 김예빈, 김종현, 박명숙, 장재환,
전태극, 조윤현, 함연화

편 집 박대우

디자인 장민정

표지사진 전태극

© 2020 속초문화재단

저작권자가 표시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
권자가 갖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재단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4822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570-5)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T. 033-636-0669 F. 033-636-0665

www.sokchocf.or.kr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www.oksc.or.kr

목차

창간호 특별 인터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 > 02

김철수, 속초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문화도시 알기

훌륭한 시민의식이 ‘문화도시’를 만듭니다 > 06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인터뷰

속초사색

청호마경(靑湖磨鏡) 1, 2 > 10

전태극, 사진작가

공간의 발견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문화복합공간 ‘속초, 다’ > 14

박정근, 아트제이 대표 인터뷰

전입 신고합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 속초 > 18

김해진, 속초 어반스캐처스 대표

이야기 보따리

냉면을 맛보고 애걸하거늘: 함흥냉면 > 20

엄경선, 설악닷컴 대표

우리 곁의 사람들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24

김상호, 아바이마을 갯배 운전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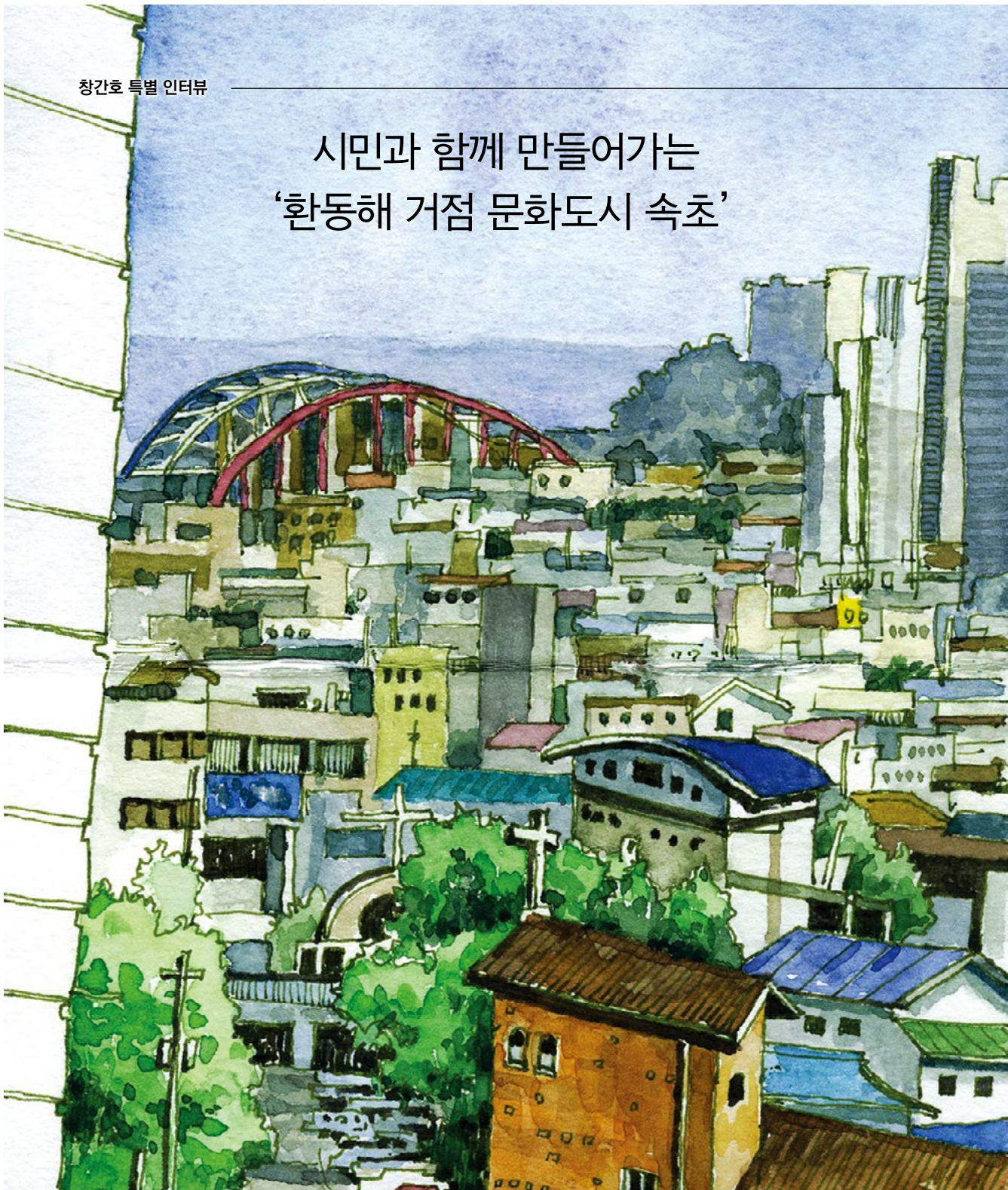
속초 느낌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받을 것인가 > 28

박대우, 온다프레스 대표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소식 > 30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속초시민의
특색 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정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02
▽
03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소식지인 ‘오코나’의 창간사를 겸하여, 속초문화재단 김철수 이사장의 인터뷰를 실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7월 30일 시민문화활동가 ‘소식지 발간’ 팀과 속초문화재단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업무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간사 겸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문화재단 이사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속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9년부터 ‘일상의 문화가 살아 있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문화예술 전담기관인 속초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재단이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식지 ‘오코나’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도시

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이 함께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속초문화재단이 지난 2월 출범식과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속초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속초시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 중 하나가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인 속초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요. 속초문화재단은 속초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전반적인 사항과 공연 및 축제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교육사업, 지역콘텐츠 발굴 및 개발, 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 등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의 사업 중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재단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단은 사무국 체계로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팀,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문예진흥팀, 공연 및 축제를 담당하는 공연사업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인 저와 여섯 분의 이사님, 두 분의 감사님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근 직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해 세 개의 팀에서 총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인력을 점차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단 출범 후 가장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화도시의 핵심은 바로 시민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 발족 후 문화예술인,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열었고, 100인의 시민문화활동가를 모집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

양한 분야가 함께하는 네트워킹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단이 얼마 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BI(Brand Identity)를 확정했는데요, BI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속초의 영문 'SOKCHO'에 들어 있는 'OK' 철자를 부각시켜 워드마크 형태로 BI를 제작했습니다. 'O'는 떠오르는 태양을, 'K'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사람을 의미합니다. OK 하단의 물결 패턴은 환동해를 나타내는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속초의 문화와 관련한 예술, 관광, 음식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오케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공모를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018년 선정돼 '일상의 문화가 살아 있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펼쳐게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나가고 합니다. 속초시를 문화 브랜드 도시로 성장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초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 몇 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크게 문화도시 기반사업, 시민문화 활성화사업, 문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문화도시 기반사업으로는 문화도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속초를 새롭게 발견하는 생생 라이브러리, BI 개발, 홈페이지 구축, 소식지 발간, 굿즈 개발 등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문화 활성화사업으로는 시민 제안 및 공모, 속초문화아카데미,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특화사업으로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으나, 재단 직원들과 속초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시민문화활동가 100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문화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셜샐롱 속초공감'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소식지 발간, 굿즈 개발, 속초 맛앰 썩(SOK), 속초타임머신 등

네 건의 기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네 건의 시범사업으로, 재미있는 속초 이야기 웹툰 제작, 이북세해봄세&라이프 스킵아카데미, 아By 아My, 속초 공원도서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조성사업과 문화도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아카데미, 포럼, 간담회 등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 속초'를 만들어가는 준비단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속초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정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수겠지요.

아울러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재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알기

훌륭한 시민의식이 ‘문화도시’를 만듭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멘토, 권순석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 속초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가 김종현

강원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환적 삶의 토대가 갖춰져 있거나
 혹은 그러한 전환적 삶을 가능케 하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06
 ∨
 07

**안녕하십니까?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편집
 위원이자 시민활동가인 김종현입니다. 오늘 모신 권순석
 대표는 1994년 춘천마임축제의 기획자로 시작해 2000
 년 이후부터는 지역문화 관련 연구, 컨설팅, 교육을 주 영
 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컨설팅 바라’ 대
 표로서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에 조언해주
 고 있습니다. 권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란 무엇인
 가요?**

문화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쓴 어느 칼럼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드리고자 합
 니다. 최근 제주 다음으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강원도
 를 꼽는다는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강원도
 이주와 그곳에서의 삶이 로망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도
 시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요?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 도시를 떠
 나 지역으로 가려 하는 것일까요. 바쁘고 바닷하기만 한
 일상을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고 자신을 위한 시
 간에 투자가 가능한 삶, 혼자자 아닌 함께하는 삶이야말

로 지역살이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종의 삶의 전
 환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강원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환적 삶의 토대가 갖춰져 있거나 혹은 그러
 한 전환적 삶을 가능케 하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사실 삶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전제해야 할 것은 가치
 의 전환입니다. 즉 문화도시란 기존의 세계관과는 다른
 신개념의 도시를 가리키지 않을가 싶습니다. 커다란 부의
 축적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누구나 먹고살 만한 일자
 리가 있고 그 일은 자신의 취미와 능력에 맞춰져 있으며,
 쾌적한 자연이 있고 마을을 둘러보면 어디든 역사적 유물
 과 놀이가 있는 도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
 해 배움과 학습이 제공되고, 함께 나누며 서로 보듬는 질
 서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적 기반이 문화도시의 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다양
 한 활동을 벌이면서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 절차는 첫째, 지역 내 논의를 거쳐

격한 토론 중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시민의 태도는
어떤 문화(특화)도시로
가는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문화도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사업
계획서가 승인(문화도시 심의위원회)되면 예비도시의 지
위를 갖게 됩니다. 셋째, 1년간의 예비도시 사업을 통해
그 실험과 토대를 만들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법정 문
화도시로 승인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2~3년이
걸리고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조건과 준비가 필요
합니다.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문화도시의 미래상
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각각의 제안된 실천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소수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
을 시민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
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또한 사업 중심의 접근보다는 다소 추상적일지라도 어떠
한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과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도시의 구
성원이었던 시민들의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생태계 중
심의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해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권 대표님이 생각하는 속초는 어떤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속초 하면 다양한 삶의 현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거친 바
람과 파도와 싸우며 삶을 이어간 생존도시,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가진 도시, 남북을 잇는 철도와 러시아를 거
쳐 유럽으로 이동하는, 태평양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확
장 가능한 도시, 남북의 삶이 공존하는 도시, 개발과 보존
의 가치가 충돌하는 젊은 도시 등 다양한 이미지가 속초
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도시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속초는 지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아카데
미, 시민라운드테이블, 문화포럼 100인토론회 등 속초시



© 이영자

민과 함께 도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화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들을 통해 느끼는 바는 속초에 대한 속초시민의 애정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입장도 존재합니다만 이는 오히려 건강한 시민 의식이 살아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격한 토론 중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시민의 태도는 어떤 문화(특화)도시로 가는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의 여러 관점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합리적 태도로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며 공존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재 속초시는 문화재단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권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생 출범한 속초문화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비교적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행정과 더불어 민간의 전문성과 시민의 생각을 바탕으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대리가 아닌 시민과 행정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에 큰 의미를 두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우리 속초 말고도 다른 지역에 문화도시 컨설턴트로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지역 사례에서 속초가 참고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현재 법정문화도시 일곱 곳과 예비도시 열한 개 지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 차원에서는 부산 영도가 참고할 만하고 시민 참여 부문에서는 부천시 모범사례입니다. 어느 한 도시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속초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쉽지 않은 질문에 고견을 주신 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 속초'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길을 끝까지 같이 걸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속초사색

청초천과 청초호 부근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곳을 가리켜 소야팔경(所野八景)이라 부른다.

그중 제1경이 '청호마경(靑湖磨鏡)'이다.

청초호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잘 닦은 거울처럼 설악의 산세를 오롯이 비춘다 하여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글, 사진 전태극



청호마경(靑湖磨鏡) 1, 2019년 7월.





청호마경(靑湖磨鏡) 2. 2019년 8월.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문화복합공간



‘속초, 다’

아트제이 박정근 대표를 만나다

© 진태근



업종 다목적 문화공간

주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55

시설 1층 / 속초바당, 카페 씬, 디어오션, 건어세상

2층 / 디지털 공간, 회의 공간

3층 / 테라스 책방

한여름답지 않게 비가 오락가락하던 7월 말, 유난히 쾌청하고 맑은 날씨에 ‘속초, 다’를 찾았다. ‘속초, 다’는 중앙로 82번길에 있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복합공간이다. 기억을 떠올려보면 ‘골드보울’이라는 물횃집이 있던 자리다. 입구를 들어서면 푸른색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요즘 같은 때에 속초에서 찾기 힘든 공간의 모습이다. 마당 오른쪽으로 3층 높이의 단정한 건물이 눈에 띈다. 이곳을 비롯하여 속초에서 여러 공간을 꾸려온, (주)아트제이의 대표이자 이곳 ‘속초, 다’의 투자자인 박정근 씨를 만났다. 박정근 씨는 1988년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본래 외가였던 속초로 이사를 와 23년간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에게 ‘속초, 다’라는 공간의 소개를 부탁했다.

‘속초, 다’는 ‘속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공간입니다. ‘속초’와 ‘다’ 사이에 점표를 넣은 것은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뜻이고요. 본래 공연기획회사인 아트제이를 운영하다 보니, 속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면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초는 청년들이 자리 잡기 힘든 곳입니다. 저 스스로가 청년기에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곳을 방문하면 판매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플랫폼 개념을 도입해보았습니다.

1층은 씨푸드 음식점 속초바당과 카페 씬(제빵, 수국차, 주얼리, 디퓨저, 캔들, 비누 등 판매) 등이 입점해 있고요. 2층은 회의 공간으로 주기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은 테라스로 된 책방입니다. 김진기 안경원 건물 2, 3층에는 ‘아트제이박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야외공간은 중앙로 82번길의 모든 상인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현재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저녁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초, 다’는 법인으로 운영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각 지점마다 매출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각각의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월세를 내고 부족분은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82번길’이라는 브랜드 네이밍과 ‘마켓 82’를 운영해보려고 아바이마을에서 자전거 20대를 받아 재생하고 마켓에서 활용될 푸드바이크도 준비해놓았습니다.

제가 속초를 떠올리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는 도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속초는 기획의 도시인 셈이죠. ‘속초, 다’는 이 같은 기회를 잡고자 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복합공간입니다. 가만히 보면 속초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청소년, 청년을 소비자로서 대접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소비의 대상이 아닌 놀이와 생산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속초, 다’에서는 몇몇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이 당장은 대학 진학을 위해 타지로 떠나지만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연도 하고 함께 일하며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실은 저도 어린 시절에 방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좋





© 전대규

‘속초, 다’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복합공간입니다. 청년들이 놀이와 생산의 주체로서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은 조연자를 만났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계속 관심을 두게 되네요.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 건물을 높이 세우려는 추세에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마당 있는 카페가 있으니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살리는 게 저의 콘셉트입니다. 모두가 유행을 따르려고만 하는데 그건 문제라고 봐요. 하나만 보고 달리는 것은 좋지 않기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속초에 수많은 공간들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젊은 창업자들도 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의식하고 또 의식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마을 사업을 다녀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새롭다고 자기 주장만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들 자신들의 공간이 소통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변 이웃과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발로 뛰어가며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을 초에 ‘속초, 다’의 문을 열 때, 제가 이곳 중앙로 82번길 상인들과 주변 거주자 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여기 속초, 다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마당을 쓰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행동인 것 같아요. 내 발로 움직이며 부딪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는 줄어드니까요.

‘속초, 다’는 앞으로 ‘소통하는 공간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자”라는 모토를 갖고,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개인의 브랜딩으로 장사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속초, 다’에서 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단순히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전입 신고합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 속초



김해진

속초 어반스케치스 대표.
2016년 1월, 남편의 전근으로
속초 생활을 시작했다.
교육문화관 등의 어반스케치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근교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속초에 정을 쌓고 있다.

18
✓
19



똑, 똑, 똑. 지금으로부터 4년 반 전인 2016년 1월, 남편과 함께 속초살이를 시작한 예순두 살의 김 여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운전을 했어도 늘 초보 같은 실력에 남편이 놀리는 별명이기도 하죠. 그래도 10년이 넘는 애마는 저의 속초살이의 일부분이랍니다.

5시 반 기상 습관은 이곳 속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청대산을 오르고 바닷가와 시내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닙니다. ‘오, 멋져, 좋아!’를 연발하면서 고성과 양양 지역까지 방문지를 넓혀갔고 그러면서 점점 더 속초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어느덧 비릿한 바닷내음도 친숙해지고 맛집 탐방 등이 시들해질 즈음, 이곳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해서 찾아간 곳이 속초교육도서관과 속초 문화원이었습니다. 사진, 수영, 도시 스케치, 오키나와, 규방 공예, 캘리그라피 등을 차례차례 배워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고 속초에 뿌리를 내리는 터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2년간은 교육도서관 사진반에서 배운 실력으로 인스타 등 SNS에서 속초의 아름다운 모습을 홍보하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반스케치 동아리회원들과 함께 그려온 속초의 거리와 골목의 풍경이 속초의 홍보자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무척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근교에 마련한 약간의 농토에 호박, 오이, 쌈채 등의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거두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전원 즐기기도 또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속초 자랑질은 속초에 오면서 바로 시작된 것 같네요.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공기는 언제나 자랑거리지요. 매일 아침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폰으로 찍어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재미에 부지런을 떨기도 했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기를 받으려고 제 문자를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요. 이제는 속초에 사는 저를 모두가 진짜 부러워들 하고 있지요.

수도권에 살 때에는 절대로 지방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어느새 낯설에 적응하고 이곳 생활에 빠져드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중학교 수학여행 때와 신혼여행 때 설악산을 찾았던 것이 이곳과의 남다른 인연의 단초였을지도 모르겠네요. 35년간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속초살이 2, 3년 만에 말끔히 씻겨나갔으니 참으로 감사한 인연이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손주들을 자주 못 보는 것이 조금 서운하긴 하지요. 차로 두 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데도 어느새 뜬해지고 소홀해지는 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 제게 앞으로도 속초에서 살고 싶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지금은 또 다른 답을 드릴 것 같네요. 속초가 아름다워서라기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이야기 보따리

냉면을 맛보고 애걸하거늘, 함흥냉면

오직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닦선 이역만리 먼 타향에 정착하여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 날이 올까 기다리던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리움이 배인 음식이 바로 속초 함흥냉면이다.

엄경선

설악닷컴 대표.

속초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속초에서 살았다.

설악신문에 여러 기사를

연재하고 있으며

〈설악의 근현대 인물사〉 등

여러 다양한 책을 썼다.

20

✓

21

냉면(冷麵)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다. 조선시대에도 냉면을 즐겼다는 문헌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근대적인 외식문화가 시작되면서 냉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식문화이기도 했다. 집밖에서 먹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건 국밥이었지만, 별미로 먹는 건 냉면이었다. 1907년 7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 2면에는 투옥된 의병장 민종식과 관련한 냉면 이야기가 실렸다.

민종식 씨의 겸인(兼人,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리종원이 그 주인을 위하는 성의는 전보에도 게재하였거니와 리씨가 그 주인 민종식 씨를 위하여 재작일에 랭면 일기와 랭수 일기를 가지고 감옥서 문전에서 민 씨께 드리기를 청하매 거절하고 드리지 않는지라. 리 씨가 초조하여 말하기를, 이 음식에 혹 의심이 있어 그러하느냐 하고 랭면과 물을 먼저 맛보고 애걸하거늘, 랭면은 받아들여가고 물은 거절하고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민종식(1861~1917)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1906년 3월 홍주(홍성)에서 1천여 명의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일진회원의 밀고로 그해 11월 20일 피체되어 다음해인 1907년 7월 3일 교수형을 선고받고 다음날



함흥냉면국 창업주 고 이섬봉 옹의 생전 모습

내각회의에서 종신유배형으로 감형되어 진도로 유배되었다. 바로 이 냉면 일화가 있던 날은 7월 4일이니, 교수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이다. 혹 살아 생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별미 음식이 바로 냉면이었다. 그러나 냉면 육수는 불허되고 면만 허락되었으니, 감옥 안에서 냉면 맛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을까? 구한말 신문에는 도박장에서도 냉면을 시켜먹기도 하고, 일본인이 냉면집에서 무전취식하고 달아나다 잡혔다는 기사도 나온다. 그만큼 냉면은 보편화된 음식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냉면이라면 평양냉면을 뜻했다. 메밀국수를 고기를 삶아낸 육수에 말고 고명으로 돼지고기 등을 얹어 먹었는데, 여름철에는 고기가 상하여 식중독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1910년 우리나라에 상륙한 최초의 합성조미료 MSG인 아지노모토로 육수의 맛을 내고, 찰기가 없어 잘 끊어지는 메밀에 탄력을 더해주는 식용소다도 사용하면서 냉면집은 더욱 성업하게 되었다. 평양을 비롯해 지역별로 냉면조합도 결성되었고, 노조가 결성되어 파업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함흥냉면이라는 말은 한국전쟁 후 함경도 실향민들이 함흥냉면이라고 이름을 붙여 냉면을 팔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원래 함경도 지방에서도 함흥냉면은 없었다. 함흥냉면의 원조 격인 농마국수(녹말국수)가 있었다. 함경도에는 감자가 많이 생산되어 감자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농마국수였다. 냉면이라면 메밀로 국수를 뽑았는데,

속초에 함흥냉면이 들어선 것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함흥냉면의 원조로 알려진 서울의 오장동 함흥냉면이 1954년 청계천 평화시장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냉면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니, 사실 속초의 함흥냉면이 몇 년 더 앞서 함흥냉면을 팔기 시작한 셈이다.



© 2018

함경도는 메밀이 귀해서 감자로 녹말가루를 내어 국수를 뽑게 된 것이다. 속초에 함흥냉면이 들어선 것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함흥 출신 이섭봉 씨가 속초 시내 7번국도변에 야산을 깎아서 움막집을 짓고 나무 식탁과 의자를 놓고 ‘함흥냉면옥’이라는 이름으로 냉면 장사를 시작했다. 50년대 말까지는 장사를 하다 말다 했지만, 19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함흥냉면 식당으로 자리잡았다. 함흥냉면의 원조로 알려진 서울의 오장동 함흥냉면이 1954년 청계천 평화시장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냉면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니, 사실 속초의 함흥냉면이 몇 년 더 앞서 함흥냉면을 팔기 시작한 셈이다.

모든 향토음식이 사연이 깃든 고향의 음식이지만, 속초의 함흥냉면은 그 의미가 더 깊다. 오직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낯선 이역만리 먼 타향에 정착하여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 날이 올까 기다리던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리움이 배인 음식이 바로 속초 함흥냉면이다. 그래서 고향 생각에 속초의 실향민들이 가장 즐겨 먹고 위안을 받는 음식이었다.

속초의 함흥냉면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다. 면 위에 얹는 고명도 이제는 가자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자미가 귀해졌다. 대신 1980년대 이후에는 명태회를 고명으로 얹는다. 맛을 좌우하는 양념도 변화가 있다. 속초 지역 함경도 사람들의 입맛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데 익숙한데 서울 입맛은 상대적으로 덜 짜고 덜 매운 걸 선호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 양념의 배합비율도 달라졌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요즘은 합성조미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조미료도 최소로 넣는다.

지금 속초에는 50여 곳의 냉면집이 제 나름의 맛을 뽑내며 성업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속초 냉면의 맛이 전수되어 퍼져나갔다. 그중에는 ‘속초코다리냉면’이라는 상호가 가장 많이 보인다. 만드는 법과 맛은 속초의 함흥냉면인데, 속초코다리냉면으로 특화된 이름을 사용했다. 속초의 함흥냉면이 또다른 이름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1951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만들어낸 속초 대표음식인 함흥냉면,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먼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의 맛은 여전하다.

* 이 글은 필자의 책 『시간여행 속초음식생활사』(속초문화원 2018)에서 발췌, 편집하여 게재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 전태근

우리 곁의 사람들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아바이마을의 김성호 어르신을 만나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된 이들이
 타던 배가 갯배였던 것이다.
 많은 애환과 아픔이 함께한 세월이었다.

24
 ∨
 25

햇살이 따갑게 내리쬘고 한여름의 기운이 부족 무르익은 7월의 어느 날, 선착장 주변의 한 찻집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던 나의 시야에 무심히 들어온 갯배 한 척. 쪽빛의 화사한 푸른 하늘, 항구에 약간 어수선하게 줄을 비껴선 어선들, 적당하게 비집고 선 고만고만한 건물들의 조합을 뒤로하고 물살을 조심히 가르는 갯배에 사람들의 발길이 오르내리는 풍경은 무척 신선하고 푸근했다. 문득 저 갯배에 스며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주변에 묻고 물어 이곳 아바이마을에서 70여 년간 갯배와 함께 세월의 노를 젓고 계신 김상호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에는 공공 일자리에 나가고 가끔씩 갯배에서 손이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 거기 가서 갯배를 끌어 지내지요.

갯배를 운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젊을 때는 배도 타고 공사장 등등 온갖 일을 하다 일흔 살

넘어서 갯배를 몰게 되었으니 팔 년 정도 했지요.

1940년생, 올해로 여든한 살인 김상호 씨는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2구에서 태어나 인민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남으로 내려왔다.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며 이곳 아바이마을(청호동)에서 피난 생활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 동생들이 생기고 식구가 늘었다. 딱 열 살 때 내려와 그 뒤로 70년을 살고 있는 아바이마을은 애환이 많은 곳이다. 그야 천만다행으로 부모님과 함께 난리를 피했지만, 이곳에 며칠만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젊은 부부도,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이가 있어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내다 결국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뒤늦게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된 이들이 타던 배가 갯배였던 것이다. 많은 애환과 아픔이 함께한 세월이었다.

이 특별한 사연을 담은 갯배는 본래 일제강점기부터 운행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습이 바뀌어왔고 언제부턴가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연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됐다.

어릴 때부터 갯배를 이용했고 연세가 들어 갯배를 직접 운행하면서 특별한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속초중학교 9회 졸업생인데 등굣길에 이 갯배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 당시 3학년 선배들이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의 줄을 당기는 건 1학년, 2학년 후배들이었다. 그 뒤로는 오징어잡이 배를 타야 월사금을 낼 수 있었기에 가정 형편상 도저히 학교에 더 다닐 수가 없었던단다.

지금의 설악대교와 금강대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청호동에서 중앙동까지가 100미터 거리였단다(지금은 대부분 매립되어 그 폭은 50미터가량이다.) 그러다보니 갯배가 그 사이를 오고 가려면 지금보다는 꽤 시간이 소요되었고, 어느새 갯배가 마을 복덕방처럼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가정사를 논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훈훈하게 들린다. 사람들의 체취가 묻은 이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김상호 씨이기에, 갯배 주변의 변화가 망냥 기쁘지만은 않다.

청초호 오염이 문제가 되어서 여길 재정비했잖아요. 그러면서 본래의 아바이마를 길을 끊어버리니까 장사가 되지 않아요. 걸어서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청호동 다리 밑에 북-남을 연결하는 갯배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건 큰 배들의 항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 겁니다.

여객터미널도 문제가 있어요. 터미널에 크루즈선이 들어올 때 환영행사도 했지요. 제가 그 자리에 나가봤는데, 크루즈선 손님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속초 경제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크루즈선 내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터미널을 만든다면서 본래의 바닷가를 없앤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바다는 사람들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 힐링을 받는 곳이에요.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태민

“내가 김소월 시를 좋아했어요.
중학 시절에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보고는 감동해서 다 외워버렸지요.
그런데 내 신세가 저 시처럼 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부두를 만들고 철조망을 쳐놓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었던 말이에요. 인간들이 가진 마음의 병
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공간에 창고, 부두를 만든답시고
철조망을 쳐놓다니… 예전에는 거기 가서 낚시도 하고 마
음을 풀곤 했는데 이젠 시멘트 울타리가 되었어요.

한참 인터뷰를 하다 보니, 한쪽 벽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개의 액자들이 눈에 띄었다. 얼마 전 서울대
에 입학한 손주의 합격증, 갯배를 운전할 때 속초의 친
절한 시민으로 추천되어 받은 우수시민상 등이다. 마
침 현 속초 시장에게 상을 받는 장면도 있어 여쭙보니
시낭송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이라고 한다. 본래도 시
를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가보라고 해서
출전해보았다고 한다.

내가 김소월 시를 좋아했어요. 중학 시절에 김소월의 「초
혼」이라는 시를 보고는 감동해서 다 외워버렸지요. 그런
데 내 신세가 저 시처럼 된 거야. 그나저나 시를 낭송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고 읽었지만 나는 모두 외워서
읽었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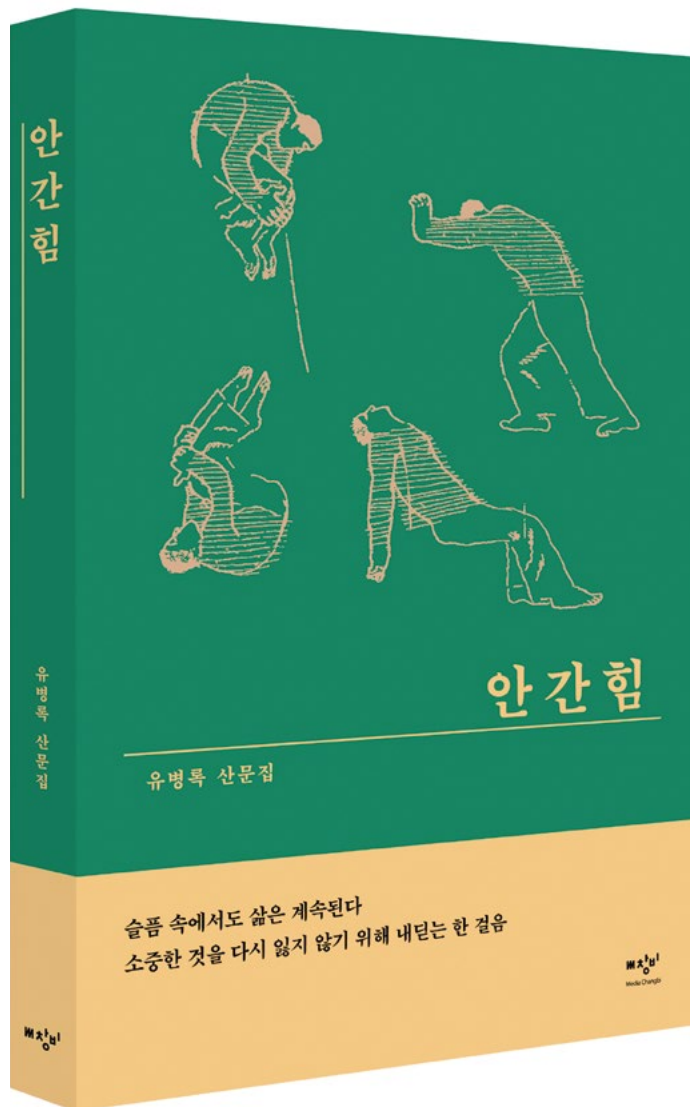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
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의 「초혼」을 낭송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 살 찢었던 사내아이가 고향을 떠나 잠시 머물렀던
타향에서 70여 년간 온갖 세상풍파를 다 겪으면서 살
아낸 이곳, 아바이마을(청호동)의 추억과 아픔을 담아
내고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6·25 이후 얼마
나 많은 죽음과 이별, 그리움과 아픔들이 함께해왔는
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존재하는
지… 유유히 흐르는 물결 따라 나아가는 저 갯배는 열
살 소년의 꿈을 기억하고 있을까.

속초 느낌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 받을 것인가

『안간힘』



저자 유병록 | 출판사 미디어창비 | 출판년도 2019 | 값 13,500원

종종 그의 차를 얻어 타고 퇴근하곤 했다. 호젓하게 홀로 차를 몰고 가면 더 편했을 텐데, 그는 차창을 내리고 “선배, 같이 가시죠!”라며 나를 불러 세우고는 스스럼없이 옆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우리 동네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그 마을에 꽤 오래 살아온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길은 그의 평소 모습처럼 가지런했다. 일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저 이 사람 스타일은 편평하니 뭐든 잘하네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클래식 FM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그의 등단작은, 유병록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달이어서 그것에는 과연 뒷면도 있구나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그는 내가 걷지 않은, 먼 세계의 경계를 거닐고 있었던 것이다. 간밤에는 어느 빙하를 건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말끔한 모습으로 온대의 출근지로 가방을 둘러메고 나서는 듯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날, 회사로 비보가 들려왔다. 병록 씨의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한동안 자리를 비웠고 다시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위로가 멀리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나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다가와야 한다고 믿었나보다. 내 아픔이 크니까, 나는 여기 주저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울고 있으니까, 위로가 알아서 나를 찾아 곁으로 와주길 기다리고 있었나보다. (…)

그런데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을 보며, 어찌면 위로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위로에게 다가가고 내가 위로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

각이 들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슬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큼 괜찮아지기를, 그래서 준비해둔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났다.”

—이 책 속에서

이 책 『안간힘』을 읽고 많이 쓸쓸해져서 여러 날을 뒤척였다. 그가 퇴근길에 동행 하나 태우는 일을 아무렇지 않아 했던 것처럼, 이 책은 수많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고통의 공감자로서 불러 모은다.

그가 이렇게 관대하게 자기 곁을 내보일 수 있는 이유는 분명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일상을 형클어뜨린 거대한 슬픔에 맞서 그가 엉터리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다. 유병록 작가의 지난 세월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록이다. 즉, 이 책은 그의 가지런한 슬픔의 종합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먼 세계의 경계 어디쯤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쓴 유병록 작가는 김준성문학상, 내일의한국작가상을 수상한 시인이다. 201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등단 당시 “시선의 깊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묘사력이 탁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은 그가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안간힘을 내어 써 내려간 치유의 기록이다.

박대우

온다프레스 대표. 3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와 출판사를 열었다. 아주 천천히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고 있다.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소식



시민문화활동가 모집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 주도 사업의 형성 기반인 '시민문화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문화 예술 종사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 학생 등 다양한 직군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총 100여명 신청해주셨습니다.

시민문화활동가는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함께 기획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자, 재단과 시민 간의 네트워크 중개자, 문화도시 속초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 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양한 네트워킹에 참여하며 속초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문화도시로서 정체성 확립 및 방향성, 전략을 수립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민문화활동가 오리엔테이션 및 정기활동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주축이 될 시민문화활동가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활동을 개최합니다. 첫 정기활동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문화도시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과 상호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조성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후 활동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만남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 간담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여, 문화예술 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속초시 문화예술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단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서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발교락영상 수집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교락 영상 수집전’을 개최했습니다. 대면 접촉 없이 참여 가능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요. 많은 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로이 영상을 촬영하며 잠시나마 가족과 재미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으로 접수된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 ‘응원 메시지 영상’으로 제작되어 현재 ‘속초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시민문화활동가 아이디어 공모전 및 ‘손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속초’ 공모전

직접 운영 및 참여해보고 싶었던 문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동안 시민문화활동가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직접 문화기획을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여 ‘문화기획자’로서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였습니다. ‘살고 싶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고, 이로써 총 열두 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접수했고요. 제3의 관점으로 속초를 관찰하고 기획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속초’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문화예술작품 수집 ‘속초아트컬렉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다양한 사업에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활용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자 ‘속초아트컬렉션’이 기획되었습니다. ‘속초아트컬렉션’은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 작품을 수집하여 지역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집된 작품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유 및 배포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재)속초문화재단-어반스케쳐스 속초 업무협약(MOU) 체결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및 시민문화 발전 도모를 위해 '어반스케쳐스 속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반스케쳐스 속초'는 지역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려내는 시민 동아리로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어반스케치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보다 친근한 느낌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속초, 맛썸 썸(SOK)

'맛애썸 프로젝트'는 속초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는 연계 문화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시민문화활동가로 구성된 발굴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속초의 고유 음식문화를 발굴 및 취재하고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향후 인문자원 아카이빙 작업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속초공감(소셜살롱)

시민문화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그룹이 운영됩니다. 시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범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속초공감'은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의를 이끌어가고, 사업 방향 및 추진 방식을 자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속초공감'에서는 재단 기획사업인 '소식지 발간' '굿즈 개발' '속초 타임머신', 시민문화활동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인 '재미있는 속초 이야기 웹툰 제작' '우리 동네 문화연결고리 이북세 해봄세' '속초 라이프스킬 아카데미', 손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속초 공모전 수상작인 '아By, 아My'와 '속초공원 벤치도서관' 모임 등이 진행 중입니다.



“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이 살고 싶은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
더욱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

각 동에 살고 있는 시민의 아이디어

속 초 동민아 3 6 5

- 접수기간 현재 ~ 2021. 12. 31.
※ 단,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는 매일접수만 가능
- 참여대상 속초시민 누구나
- 제안주제 살고싶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제안
- 접수방법
- 현장: 속초문화재단 사무실, 속초시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등
- 메일: keh0608@sokchocf.or.kr
- 유의사항
- 시민 다수를 위한 아이디어 외 민원 관련 내용 접수 불가
- 중복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의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 순위로 함
- 문의
- 문예진흥팀 ☎ 033-636-0669
- 홈페이지 www.oksc.or.kr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속초시는 '일상의 문화가 살아있는 환동해 거점 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속초시 주관 속초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kchocf>



속초문화재단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okchocf>



속초문화재단 유튜브
유튜브에서 '속초문화재단' 검색



속초문화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kchocf>



속초문화재단 밴드
<https://band.us/@sokchocf>



속초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홈 화면에서 '속초문화재단' 검색

